

2025 탄자니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2025년 대선 및 총선 실시, 집권 여당 재집권 전망	5
나.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6
다. 미래 수출 동력으로 천연자원 개발 강화	8
라. 청정 조리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 강화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16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6
나. 교역	18
다. 투자	22
라. 프로젝트	24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7
가. 교역	27
나. 투자 진출	29
다. 협력 유망 분야	32
III. 진출전략	33
1. PEST 분석	33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4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4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6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6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7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5년 탄자니아 경제는 성장세 유지,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은 불안 요인

- 2023년 5.1%의 경제성장률 달성 이후, 꾸준한 안정적 성장세 유지 전망

- 농업, 제조업, 관광업의 견고한 성과와 지속적인 공공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탄자니아 2024년과 2025년의 GDP 성장률은 각각 5.4%, 6.1% 달성할 것으로 전망(WB)
- 안정적인 식품 및 에너지 가격과 통화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정부 목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수지 개선으로 외환보유고 개선 기대

- 기후 관련 문제,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성장 둔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 존재

나. 주요 경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57.4	59.2	61.0	62.8	64.7	66.6	68.6	70.6
명목GDP	십억 달러	54.8	58.7	63.4	68.1	73.9	80.2	80.5	85.1
1인당 명목GDP	달러	953.6	992.5	1,039.7	1,083.2	1,142.4	1,204.0	1,174.2	1,205.7
실질성장률	%	7.0	7.0	4.8	4.9	4.7	5.1	5.4	6.1
실업률	%	2.2	2.2	2.8	2.7	2.8	2.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3.5	3.3	3.7	4.4	3.8	3.5	4.2
재정수지(GDP대비)	%	-1.1	-2.3	-1.0	-3.5	-3.5	-3.4	-3.3	-3.2
총수출	백만 달러	4,292.7	5,377.6	6,371.1	6,756.2	7,233.8	7,827.0	8,558.0	9,335.0
(對韓 수출)	"	33.2	36.7	47.2	25.9	76.3	68.3	-	-
총수입	"	8,519.7	8,615.2	7,831.7	10,003.4	14,208.7	13,726.0	14,612.0	15,347.0
(對韓 수입)	"	193.7	138.0	151.2	200.1	321.2	308.4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227.0	-3,237.5	-1,460.0	-3,247.1	-6,984.9	-5,899.0	-6,054.0	-6,012.0
경상수지	"	-2,308.4	-1,339.2	-1,458.5	-2,374.4	-5,397.1	-2,787.7	-3,005.5	-3,300.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263.8	2,288.2	2,294.1	2,297.8	2,303.0	2,383.0	2,610.7	2,724.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	0	0	0	0	0	0	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72	12.16	9.44	11.92	12.64	14.54	19.62	21.78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EIU, World Bank, 한국무역협회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2025.10월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 정권의 재집권이 예상됨
- ※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쟁력 제고
- ※ 활발한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성 강화
- ※ 2034년까지 가구의 80%에 청정 조리 솔루션 보급 추진

가. 2025년 대선 및 총선 실시, 집권 여당 재집권 전망

□ 現 대통령의 연임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 유지 기대

• 現 하산 대통령의 연임 성공 시 정치적 안정성 유지 전망

- 2025.10월은 매 5년 주기로 치르는 대선 및 총선의 해로 대통령, 국회의원(직선 264석, 비례 113석 등) 선거가 치러질 예정
- 하산 대통령은 CCM 정당 대표로 연임에 도전 예정이며, 2020.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맞수였던 리수(Tundu Lissu) 야당(CHADEMA) 대표가 주요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탄자니아 대통령의 5년 연임 관행(총 10년 집권), 특별한 대권주자가 아직까지 없는 점과 現 집권 여당의 장악력을 감안할 때 現 대통령의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EIU)
 - * 2021.3월 마구풀리 前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탄자니아 헌법에 따라 하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 現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 안정과 정책적 일관성 유지 전망

•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야당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야당과 정부 간 갈등 고조 가능성 있음

-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4.3월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안은 야당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 야당은 △무소속 후보 출마 △대통령 선거 결과의 법적 도전권 허용 △지역 행정 책임자의 투표관리관 역할 제한 △국가선거관리기구가 투표를 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에 불포함
- 야당은 비민주성을 근거로 선거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선거 후에도 정치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 상존

나.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 국내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무역 활성화 도모

•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새로운 무역정책 발표(2024.7월)

- 2003년에 수립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 2003)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 2023) 및 이행전략(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Trade Policy 2023)을 수립하고 12가지 전략 목표* 추진

〈국가무역정책 2023 요약〉

	전략 목표	세부 목표
1	정책 일관성,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담당 부처의 권한 강화 • 무역 정책 간의 일관성 강화 • 무역 관련 제도적·법적·규제 프레임워크 조정 강화 • 지역 및 국가 개발 프레임워크에 무역 이슈 반영
2	국내 시장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장 통합 촉진 •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 제품 개발 및 다양화 촉진 • 지적 재산권의 홍보, 개발 및 보호 촉진.
3	경제 블록 및 해외 시장 기회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다자 무역 및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 •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 역량 강화 • 양자/다자 무역 및 지역 경제 통합의 기회 활용 강화.
4	대외 무역 영향에 대한 경제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경제 충격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강화
5	마케팅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 및 하드 마케팅 인프라의 개발 및 개선 • 마케팅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사용 보장
6	공정 무역 및 소비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촉진 • 소비자 보호 강화
7	서비스 무역의 성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무역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 보장 • 서비스 무역 촉진
8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및 강화 • 무역 관련 이슈의 효과적인 조율
9	전자상거래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활성화 환경 보장 • 무역 경쟁력을 위한 기술 개발, 발전 및 적용 강화 • 전자상거래 활용 강화.
10	무역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하고 포용적인 무역 금융의 가용성 촉진 • 무역 자본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위한 금융 부문 개혁 촉진 • 무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인식 증진
11	민간 부문의 참여와 포용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이슈 관련 민간 부문의 효과적인 참여 환경 개선 • 비공식 부문(시장)의 양성화
12	주요 무역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관련 무역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참여 •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무역 활동의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

자료: 국가무역정책 2023(2024.7월 발표)

•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입 구조 개선 도모**

- 탄자니아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를 수출하고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상태, 달러화 강세 등 대외경제 영향에 민감
- 따라서 탄자니아 통화 가치 하락은 외환보유고 부족, 부채 상환 부담 가중 등 초래
- 농업, 제조업, 광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입 구조 개선 도모

□ **국제 무역 협정 참여 확대를 통해 무역 장벽 완화**

• **지역 무역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 파트너십 강화**

-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및 아프리카연합(AU)의 회원국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 내에서 협력을 통해 통관 절차, 무역 장벽 해소 등 무역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울러 탄자니아는 2022.7월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교역 시스템 시범 운영 국가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어 시범 운영을 시행
- 또한 COMESA-EAC_SADC 삼자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협정이 2024.7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비준을 위한 검토 과정 중에 있음

□ **철도, 수력발전소 등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

• **표준궤철도(SGR) 공식 개통, 교통 인프라와 물류 체계의 대폭 개선 기대**

- 탄자니아 내륙을 관통하는 표준궤철도(SGR)의 1구간(다레살람-모로고로) 및 2구간(모로고로-도도마)이 정식 개통(2024.7월)함으로써, 탄자니아 물류 운송 효율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근 국가들까지 연결 예정으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를 통해 무역 및 지역 통합 촉진 전망

• **탄자니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가동 개시**

- 2019년에 건설을 시작한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JNHPP)는 2024.2월 첫 번째 터빈 가동을 시작으로 7월 세 번째 터빈 가동 개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터빈 가동을 목표하고 있음
- 총 설비용량은 2,115MW로, 완공되면 연간 약 5,920G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되며, 탄자니아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다. 미래 수출 동력으로 천연자원 개발 강화

□ 경제성장을 견인할 천연가스 및 연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활발

-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가스 매장량 보유국으로 천연가스 부문 개발은 전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국제 수지 개선 기대
 - 린디(Lindi)지역 육상(Onshore)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개발 관련 2025년 내 글로벌 에너지 회사(Equinor, Shell 등)들과의 최종 투자 결정 타결 예상
- 인접 내륙국인 우간다와 탄자니아 탕가항을 잇는 1,443km 길이의 수출 파이프라인(35억 달러 규모)의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 건설 추진 중

□ 광물 분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광산업 개발을 위해 광산업 법 개정 및 광산업 개발 전략(Mining Development Strategy) 수립 예정
- 광물 분야 경제 기여도 증가
 - 광물 부문의 GDP 기여도 매년 증가 추세로 탄자니아 경제의 주요 외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 * 광물 분야 GDP기여도: 2021(7.3%) → 2022(9.1%)
 - 탄자니아 정부는 2025년까지 광물 부문의 GDP 기여도 10%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 채굴 면허 발급 시 발급 기준 강화
 - 채굴 허가 신청 시 국내 광물의 부가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국내에서의 광물 가공 및 정제 계획 등을 포함) 제출 필요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자리 창출, 국내 산업 성장과 정부 수익 증대를 목표
-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최소 50%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항공 지구물리학 조사(High Resolution Airborne Geophysical survey) 실시 예정
 - 광물부(Ministry of Mineral)는 2024/25 회계연도에 탄자니아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 of Tanzania, GST)를 통해 국토의 약 18%에 대한 조사 예정
 - 현재 탄자니아 전체 면적의 16%만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더 많은 광물 자원을 식별함으로써 광업 활동 촉진 및 투자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라. 청정 조리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 강화

□ 탄자니아 청정 조리 에너지 전략 2024-2034(National Clean Cooking Strategy) 발표

• 추진 배경

- 탄자니아 가구의 약 90%가 나무와 숯 같은 전통 연료에 의존, 이는 삼림 파괴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야기
- 특히 가정 내에서 연기를 많이 접하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상 피해는 물론, 연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과 경제 활동 기회 등을 제한받음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목표

- 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사용하기 쉬운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
- 2034년까지 80%의 가구가 청정 조리 솔루션을 사용
 - * 청정 조리 솔루션 보급 목표: 2024년(20%) → 2034년(80%)

• 청정 조리 솔루션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투자 유치

-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LPG 등 청정 연료 사용을 위한 생산 및 배급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
- 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민간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관련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

〈청정 조리 솔루션 추진 계획 요약〉

(단위: 백만 달러)

항목	계획	예산	비고
대국민 인식 제고	청정 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배포	87	여성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청정 조리 콘퍼런스 개최 등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접근성 강화	미비 지역에 가스 배급 인프라 확충	370	CNG 거점 스테이션 건설, 소형 LNG 플랜트 건설, 천연가스 배급망 건설, 재생에너지 사업 등
청정 조리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 조리 프로젝트 보조금 프로그램	27	개선된 조리 스토브 및 LPG 실린더 농촌 지역 보급 지원
정책 및 지침 개발	청정 조리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지침 개선	1,140	가정 및 산업용 청정 조리 에너지 지침 개선, 각 부처 산하기관의 청정 조리 인프라 촉진 사업 등
프로젝트 시행자 역량 강화	청정 조리 프로젝트 시행자 교육	76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시행자 교육 등

자료: 탄자니아 청정 조리 전략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CCM 집권 유지와 하산 대통령 연임 가능성 높아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전망
- ※ 경제 성장 지속 하에 실링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안정 예상
- ※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 시행
- ※ 광업·관광·금융·건설업 성장 주도, 산업 다각화 위한 정책 추진

가. 정치 환경

□ 탄자니아의 정치 제도 및 구조

- 탄자니아의 정치 제도 및 구조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와 잔지바르 자치 정부로 구성된 연방적 특성을 지님
 -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5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 가능
 - 탄자니아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독
- 잔지바르는 탄자니아의 준자치 지역으로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독립적인 행정 및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잔지바르 대통령은 잔지바르의 행정 수반으로 독자적인 내각을 구성하며, 5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 가능
 - 국방이나 외교 같은 국가적 사안은 탄자니아 중앙 정부의 권한이며, 잔지바르 의회는 잔지바르 내에서 적용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가짐
 -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잔지바르 내부의 법적 분쟁을 다룸. 단, 탄자니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는 탄자니아 대법원에 상고 가능

□ 2025년 10월 대선 및 총선에서 CCM 집권당 유지와 하산 대통령 연임 예상

- 탄자니아는 1995년 이후 집권 여당(Chama Cha Mapinduzi, CCM)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있음
 - 현 대통령인 사미아 솔루후 하산 대통령은 2025.10월 치러질 대선에 여당의 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며,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하산 대통령 취임 후 야당에 대한 정치 집회 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후 탄자니아의 정치적 다원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CCM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으나 실제 개정될 가능성 작음**
 - 수년간 지속되어온 헌법 개정 논의는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권력 분립 강화 등
 - 그러나 여당이 권력 분산을 꺼리는 점과 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대선 전에 주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
 - * 1977년 여당 주도로 채택된 현 탄자니아 헌법은 불공정한 선거 관리와 대통령 권력 남용 문제로 비판받아 2014년 개헌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 합의 실패와 2015년 이후 마구폴리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중단됨
- **선거는 큰 혼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상존**

나. 경제 환경

□ 동아프리카 평균을 웃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

-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 각각 5%대와 6%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이는 동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치 (AfDB)**
 - * 동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AfDB): 2024년(4.9%), 2025년(5.7%)
 -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농업, 광업, 관광업, 인프라 분야가 주요 성장 동력

〈탄자니아 경제성장률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AfDB	IMF	World Bank	EIU
2024년	5.7	5.4	5.6	5.4
2025년	6.0	6.0	6.0	6.1

자료: 기관별 보고서 취합

□ 인플레이션 안정적 유지, 달러 강세로 인한 탄자니아 실링은 가치 하락

- **2024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을 3%로 안정세 유지,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나 연평균 3.5%로 비교적 낮은 상태 유지 전망**
 - 2024년은 식량 가격 상승이 적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적을 때 식량 가격 반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소폭 상승 가능
-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국내 거래에서 외화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탄자니아 실링 가치 절하**
 - 2023년 말 1달러당 2,504실링에서 2024년 말 1달러당 2,717.6실링으로 환율이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내 거래에 탄자니아 실링 사용 의무화 등의 정부 조치들은 과도한 달러 수요를 제한하고 중기적으로 절하 압력을 점차 완화할 것으로 기대

• **표준궤철도(SGR), 줄리어스 니에레레(JNHPP) 수력발전소,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달러 부족 현상 심화**

- 탄자니아 내 기업들이 수입대금 결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달러 대신 유로화로 결제하는 수입업자(특히 석유기업)가 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달러 선호도와 대체 통화 채택에 높은 비용이 발생해 결제 통화 대체는 제한적임

□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전년 대비 11% 증액**

• **2024/25 회계연도 예산은 총 49.35조 실링(약 26조 원) 규모로 편성**

- 중점 지출 분야는 △지방선거('24.11월) 및 대선·총선('25.10월) 준비,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50 준비 △주요 에너지 및 교통 분야 국책사업 추진 등

• **수출 및 투자 진출 관련 주요 세제 개편 내용**

- (광산업) △개발 허가증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인상(10만 달러→ 500만 달러), △광물권 부여 신청 수수료 납부 기한일을 납부 통지일로부터 28일로 조정, △광물 수출 시 광물 데이터 허위 신고 및 누락 시 벌금 부과 조항 신설 등

- (철도 개발 부담금률* 인상) CIF 가치 기준 1.5% → 2.0%

* 철도 개발 부담금은 탄자니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관세 감면) 이차전지, 핸드폰 제조 및 조립 부품, 요거트 및 우유 생산에 필요한 품목, 현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커피/종자/담배/캐슈넛 등 포장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조정

- (부가세 면제) △탄자니아 중앙은행 및 국내 제련소로 공급되는 금, △수처리 화학약품, 수도미터, 하수처리 서비스 등의 공급 및 수입(관계 부처의 부가세 면제 승인 要), △현지 제조사 및 조립기업에 제공되는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등 부품품, △국내산 목화로 생산된 섬유제품 등

다. 산업 환경

□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3차산업 > 2차산업 > 1차산업 순**

• **2023년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농림축수산업 등 1차산업이 26.2%,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차산업이 31.3%, 관광업, 운송, 금융 등 3차산업이 42.5%를 차지**

• **대부분의 산업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업 및 금융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 기록**

- 경제성장의 주요인은 전통적인 수입원인 광업과 관광업 및 금융산업의 성장

- 농림축수산업, 제조업 등 탄자니아의 기존 주요 산업도 전년도와 비슷한 4%대 성장세 유지

□ 산업별 환경 변화 및 특징

• (광업 등) 금, 니켈, 흑연, 천연가스 등 풍부한 매장자원을 위시한 국가 주요 산업

- 금은 탄자니아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매장량은 4,500만 온스로 추정되며,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 개발도 활발
- 2024.9월 탄자니아의 마헨게(Mahenge) 흑연 개발 프로젝트* 관련 호주의 블랙록마이닝(Black Rock Mining, BRM)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투자금과 함께 아프리카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900만 달러를 확보. 광산 개발 착수 준비 완료
 - * 마헨게(Mahenge) 흑연 개발 프로젝트는 호주 BRM社(84%)가 탄자니아 정부(16%)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한 파루(Faru Graphite Corporation)社에서 운영
- 탄자니아 Rukwa Rift Basin에서 약 1,380억 입방피트(Bcf)로 추정되는 대규모 헬륨가스전 발견(2024.2). 헬륨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자원인 만큼 헬륨 개발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입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으며, 추정 매장량은 57조 세제곱피트로 모잠비크에 이어 동아프리카 내 천연가스 매장량 2위 국가로 LNG 플랜트 사업* 추진 중
 - * 2022.6월 국제석유기업인 Shell, Equinor 등과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후 주최국정부협정(HGA) 등 세부사항 논의 중으로 2025년 무렵에 최종투자결정(FID)이 예상됨

• (제조업) 탄자니아는 제조업 중심의 준산업국가 도약을 목표로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제조 기술 미흡 등이 걸림돌로 작용

- 제조업 부문은 2023년에도 성장세 약 9%로, 높은 GDP 기여율 유지 중
-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국내 제도가 가능한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
- 투자 촉진 및 수출 진흥을 위해 특별경제구역*, 수출가공지역** 운영
 - * Special Economic Zone, SEZ, ** Export Processing Zone, EPZ

• (건설업) 국가 최우선 과제인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책 지속 전망

- 건설업의 2023년 GDP 기여율은 16%로 탄자니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4년 건설 분야는 8% 성장률 달성 전망
- 건설 부문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주거 건설도 성장 전망

• (농업) GDP의 14%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 농업은 식량 생산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간 산업으로 노동인구 중 68%가 종사하나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이고 농업기술이 낙후해 생산성 낮은 편
 - * 대표적인 농산물은 옥수수, 쌀 등 곡물이며 주요 현금작물은 커피, 담배, 차, 향신료
-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변동은 탄자니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관개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하며, 생산성 혁신을 위한 우량 종자 도입, 비료 사용 증가 등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현대화 정책 추진

- (에너지) 국가 경제 및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로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인구 증가 및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력 보급률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대
 - 탄자니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JNHPP)의 주요 시설이 완성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터빈 가동 목표
- (ICT)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휴대폰 보급률에 따라 모바일 사업 꾸준히 성장
 - 탄자니아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은 2023.9월 기준 83%에 달하며,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2022.9월 5,810만 명에서 2023.9월 15% 증가한 6,710만 명을 기록
 - Vodacom과 Airtel이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5G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도입
- (자동차) 경제 성장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개선되면서 2024년 차량 총판매량(신규 및 중고차 최초 등록)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8,366대 예상
 - 중고차는 대부분 일본 및 중동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현금 거래가 우세
 - 낙후된 금융 부문은 자동차산업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 잠재력이 높은 탄자니아 정부는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으로의 전환 키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 중산업국가 달성을 목표로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전략 추진

-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구조 다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발전전략(Integrated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2025, IIDS 2025) 추진

〈탄자니아 산업화 전략 목표〉

항목	목표
제조업 부문 연평균 성장률	15%
제조업 GDP 기여율 제고	9%(2010년) → 23%(2025년)
부가가치율 향상	18억 달러(2010년) → 168억 달러(2025년)
가공품의 수출 규모 증대	7.1억 달러(2010년) → 67억 달러(2025년)

자료: 산업발전전략(IIDS) 2025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과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PZ) 운영
 - 입주 시 세제 혜택, 통관 편의 등의 각종 인센티브 혜택 제공
 - 탄자니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요 SEZ로는 벤자민윌리엄카파(Benjamin William Mkapa), 모로고로(Morogoro), 나라(Nala), 음트와라(Mtwara), 탕가(Tanga) 경제특구가 있음

□ 무역 환경 개선, 투자자 유치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새로운 무역정책 시행

- 2003년 수립된 무역정책을 대체하는 2023년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 2023)과 2023년 국가무역정책 이행전략(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Policy 2023)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12가지 전략 목표* 이행 예정
 - 동 무역정책은 탄자니아개발비전 2025(TDV 2025), 장기전망계획(Long Term Perspective Plan, LTPP), 잔지바르개발비전 2050(ZDV 2050)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환경 개선, 국내외 투자자 유치 및 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 인프라 개선, △무역 규제 환경 개선, △수출 다변화 촉진, △무역 금융 지원 등을 강조

□ 탄자니아 ESG 동향

- 탄자니아는 기업 연간 보고서 발간 시 ESG 공시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다레살람증권거래소(Dar es Salaam Stock Exchange, DSE)는 상장 기업들에 ESG 성과를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DSE에 상장된 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ESG 전략을 채택하거나 이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CRDB Bank, NMB Bank, TBL 등이 있음

[ESG 사례]

- Geita Gold Mining Ltd(GGML)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례
 - Geita Gold Mining은 탄자니아의 가장 큰 금 광산 중 하나로,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인프라 개발, 교육, 건강, 그리고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지역 사회에 약 1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병원, 학교,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음
- Vodacom Tanzania의 환경 지속 가능성 노력 사례
 - Vodacom Tanzania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 하나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탄자니아 전역에서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 CRDB Bank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 제공 사례
 - CRDB Bank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개발
 - 또한 CRDB는 탄자니아의 농업 분야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통해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

2. 시장 분석

※ 지정학적 이점과 지역경제공동체(REC) 확대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 안정적인 사회환경, 소비층 증가, 도시화 확대 등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도양과 동아프리카 인접 내륙국을 연결하는 무역 허브

- 탄자니아는 인도양과 인근 내륙 국가들의 교역 관문으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음

- 다레살람 항구는 케냐 몸바사 항구에 이어 동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로 인프라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에는 해안선을 따라 3개의 주요 항구(다레살람, 탕가, 음트와라)와 6개의 작은 항구를, 빅토리아 호수, 나사 호수, 탕가니카 호수에 11개 내륙 수로 항구를 보유

- 표준궤철도(SGR) 건설, 동아프리카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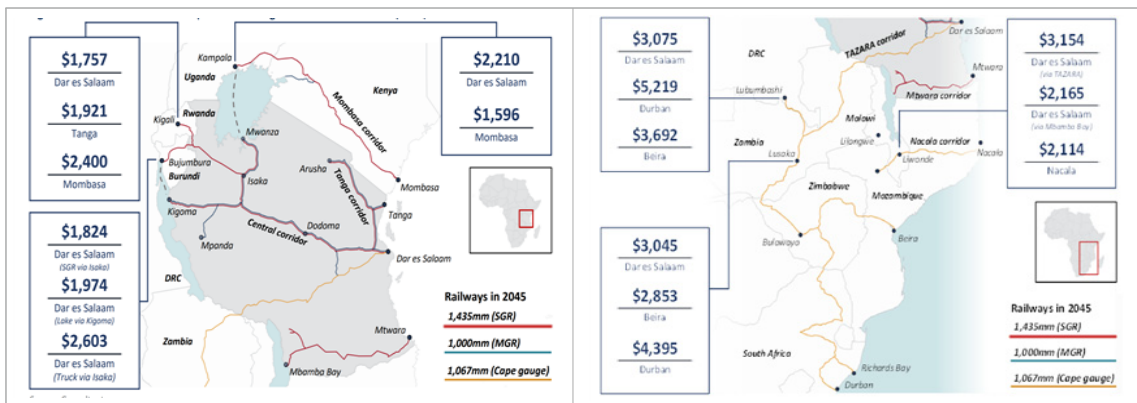
- 신형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레살람, 도도마, 탕가, 므완자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며, 향후 르완다, 부룬디, DR콩고 등 인근국에 연장 예정

- 2024.7월 다레살람-모로고로-도도마 구간의 운행을 시작했으며, SGR이 완공되면 탄자니아는 물류 및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

- 탄자니아의 철도 및 항만 네트워크가 지역 경제 잠재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 SGR과 다레살람항의 연결은 몸바사 항구에 대한 인접국의 수요를 분산하고, TAZARA 철도 개선은 잠비아의 구리 벨트 지역과 DR콩고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2045년 북부 및 남부 경로에서의 운송 비용 예상〉



자료: 탄자니아항만공사(TPA)

□ 지역경제공동체(REC) 활용에 따른 기회 확대

-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회원국이며, COMESA-EAC-SADC 3자 협정(TFTA)에 서명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지속 확대로 역내 교역 활성화
 - 2023.12월 소말리아의 가입으로 EAC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억 2천만 명, GDP는 3,129억 달러 규모로 확대
 - EAC는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비자 면제, 무역 협력,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 활성화 및 교역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통합을 추진 중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 통합과 다분야 협력의 중심
 - 1992년에 설립된 SADC는 16개 회원국을 포함한 경제 블록으로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경제공동체
 - SADC는 경제 협력 외에도 정치·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며,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아프리카 단일 시장 형성
 - AfCFTA는 인구 12억 명, GDP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으로 단일 시장 규모로는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 *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중 54개국이 참여, 47개국이 비준, 46개국 비준서 기탁
 - AfCFTA는 △역내 무역 확대 △제조업 분야 무역 증대 △무역 절차 간소화 △관세 감축 등의 무역 촉진을 통해 2035년까지 아프리카의 소득을 약 4,5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 대륙 전체 소득의 약 7% 증가
 - 특히 탄자니아는 2022.7월 AfCFTA 교역 시스템 시범 운영 국가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3.5월 시범 운영 시작,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COMESA-EAC-SADC 삼자자유무역지대(TFTA)* 협정 공식 발효
 - *Tripartite Free Trade Area
 - 2024년 7월 동 협정 공식 발효에 따라 인구 7억 명, 28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괄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
 -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 지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며, TFTA 회원국 간의 무역 혜택을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및 투자 기회 증가가 기대됨

□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사업 성장

- 금, 니켈 등 경제적 가치가 큰 각종 핵심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광물 개발 분야 성장 잠재력 큼
-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 다음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국가로 정부 주도하에 LNG 플랜트 건설 사업을 추진 중. LNG 양산이 본격화되면 탄자니아 GDP에 연간 최소 7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 전체 인구 6,100만 명 중 81%가 39세 이하인 젊은 국가

- 특히 205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1억 4,100만 명으로, 중위 연령은 현재 17.3세에서 22.2세로 증가하는 등 세계에서 10번째로 젊은 국가에 속할 전망(WB)
- 인구성장에 따른 도시화 가속, 주요 소비층인 도시 거주 중산층과 젊은 층이 확대되어 소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반소비재 수입 점진 확대 기대
 - 탄자니아 수입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약 70%로, 일반소비재 수입 규모는 크지 않으나 가공 기술 및 제조 기반이 미흡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생산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
 - 탄자니아 경제활동인구는 2024년 54.0%에서 2033년 56.7%로 증가 예상
 - 2024년의 38.1%에서 2033년에는 인구의 44.5%에 달하는 도시화는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증대 전망(BMI)

□ 아프리카 타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환경

- 탄자니아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테러의 부재 지표*는 -0.27로 케냐(-0.94), 우간다(-0.81), 부룬디(-1.19) 등 동아프리카 타 국가에 비해 안정적
 - * 정치적 불안정성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발생하는 폭력(테러 포함)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해당 국가의 점수를 나타내며, 표준 정규 분포 단위로 표시. 이 값은 대략 -2.5에서 2.5 사이의 범위로, 값이 낮을수록 정치적 불안정성과 폭력의 위험이 높음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 다양한 종교와 종족(130여 개)이 공존하면서도 소요·폭동이 적은 안정된 국가 구축
 - * 본토: 이슬람교(35%), 토속종교(35%), 기독교(30%) / 잔지바르: 이슬람(99%)

나. 교역

□ 탄자니아의 교역 동향

- 탄자니아의 2023년 총수출은 73억 달러로 2022년 68억 달러에 비해 6.6% 증가, 총수입액은 151억 달러로 2022년 157억 달러에 비해 3.4% 소폭 감소
 -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품인 담배류, 원예제품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 수입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광물성 연료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기계류, 차량, 전자기기 등

〈탄자니아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수출	5,985	6,391	6,825	7,274	9,335
수입	8,478	10,873	15,654	15,117	15,347
무역총액	14,462	17,264	22,479	22,391	24,682
무역수지	-2,493	-4,482	-8,830	-7,843	-6,012

자료: ITC('20~'23년), EIU('24년 전망)

□ 탄자니아 국가별 수출 동향

-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 남아공, UAE, 스위스, 중국 등
 - 2023년 기준, 인도가 전체 수출액의 21.4%(약 16억 달러)를 차지, 2022년 이후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특히 금 수출의 주요 대상국으로 전년 대비 금 수출액이 19% 증가, 이 외에도 커피, 캐슈넛 등 농산물의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인도에 이어서 2위 남아공(11억 달러), 3위 UAE(7억 달러) 등 기록
 - 남아공으로의 금 수출액은 2022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특히 담배류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배 이상 급등
 - UAE로의 수출은 2021년 이래 하락 추세로, 특히 금 수출액이 2022년 대비 15% 감소함에 기인
- 한편, 한국은 탄자니아의 수출국 중 33위로 전체 수출액의 0.3% 차지

〈탄자니아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	인도	856	521	1,009	1,179	1,554
2	남아프리카공화국	959	1,145	917	930	1,123
3	아랍에미리트	390	744	1,052	763	686
4	스위스	322	859	527	360	466
5	중국	232	236	273	294	428
33	대한민국	19	22	10	27	19

자료: ITC

□ 탄자니아 품목별 수출 동향

-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채유종실, 담배류, 커피·차 등 대부분 1차 생산품임
 - 금은 탄자니아 1위 수출 품목으로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을 포함한 보석류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 상승
 - 채유종실, 담배, 커피·차, 캐슈넛 등은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으로, 특히 채유종실과 담배의 2023년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8%, 77.6%로 대폭 증가
- 러-우 사태로 러시아산 석탄의 유럽 수입 길이 막히게 되면서 탄자니아 2022년 광물성 연료 수출액 크게 증가 후 2023년도에도 2억 달러대 수출

〈탄자니아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23)
1	71	보석·귀금속	2,296	2,965	2,971	3,005	3,139	4.5
2	12	채유종실, 공업용·의약품 식물	196	196	269	230	391	69.8
3	24	담배류	169	165	160	213	378	77.6
4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141	221	311	213	319	49.5
5	09	커피·차·향신료	209	201	262	262	294	12.0
6	27	광물성연료·광물유	104	55	69	256	285	11.2
7	08	식용 과실·견과류	368	377	179	259	260	0.5
8	26	광·슬래그·회	0	357	133	230	231	0.2
9	10	곡물	79	172	403	287	174	-39.6
10	03	어류·갑각류 등	166	137	164	168	164	-2.5

자료: ITC

□ 탄자니아 국가별 수입 동향

- 탄자니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 중국에 대한 2023년 수입 총액은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27.5%를 차지, 탄자니아의 최대 수입국 지위 유지
 - 주로 기계류, 차량,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을 거래
- 중국에 이어서 2위 인도(19억 달러), 3위 UAE(14억 달러) 등 기록
 - 탄자니아는 인도로부터 주로 광물성 연료, 의약품, 기계류, 차량 등을 수입
 - UAE로부터의 수입은 2022년 대비 48%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광물성 연료 수입액의 감소에 기인

- 한편 한국은 탄자니아의 수입국 중 11위로 전체 수입액의 1.7% 차지

〈탄자니아 주요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	중국	1,993	2,147	2,696	3,945	4,159
2	인도	1,262	1,084	1,210	1,961	1,949
3	아랍에미리트	952	821	1,360	2,492	1,418
4	사우디아라비아	428	342	674	610	919
5	일본	489	375	469	522	650
11	대한민국	110	125	137	251	263

자료: ITC

□ 탄자니아 품목별 수입 동향

- 에너지 수요 증가로 광물성 연료가 수입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2023년 광물성 연료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9% 감소
 - 2023년도 기준 광물성 연료의 주요 수입국은 UAE(3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1억 달러), 인도(7억 달러) 순임
- 탄자니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기계류, 차량, 전자기기 등의 수입 수요 증가 추세
 - 기계류, 차량, 전자기기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남아공 등

〈탄자니아 주요 품목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22/'23)
1	27	광물성 연료	1,918	1,377	2,268	3,891	3,271	-15.9
2	84	보일러·기계류	1,143	948	1,190	1,668	1,834	10.0
3	87	차량 및 부분품	930	750	953	1,460	1,619	10.9
4	85	전자기기 및 부분품	581	666	668	857	956	11.5
5	72	철강	493	412	707	851	775	-8.9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90	470	670	887	696	-21.6
7	10	곡물	34	201	243	434	579	33.5
8	73	철강의제품	356	362	291	399	477	19.6
9	31	비료	139	200	206	553	458	-17.2
10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221	252	296	400	446	11.6

자료: ITC

다. 투자

□ 對탄자니아 해외 직접투자액(FDI) 유입 증가

- 2023년 對탄자니아 FDI 유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
 - 2023년 전 세계 FDI는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나 탄자니아 FDI 유입액은 5.8% 증가하여 13억 달러 기록(세계 투자 보고서 2024, UNCTAD)
 - 글로벌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는 주요한 FDI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
 - * 특히 제조업, 인프라 개발, 농업, 광업 부문에서 큰 투자를 유치 중

〈최근 5개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탄자니아	1,217	944	1,090	1,265	1,339

자료: UNCTAD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청사진 시행

- 국내 투자 강화를 위해 투자법 개정(2023년)
 -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최소 투자 자본금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완화되었으나,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제품 수출, 기술력 향상, 또는 최소 1,000개의 일자리 창출 요건이 추가됨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탄자니아 정부 인허가 절차 자동화 및 투자 목적 토지 취득 절차 간소화
 -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 탄자니아 투자청(TIC, Tanzania Investment Centre)에서는 허가 및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된 7개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한 TIEW(Tanzania Investment Electronic Window)라는 통합 시스템 론칭
-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 절차 진행을 위해 프리미엄 라운지 개설
 - 전략적 투자자 및 특별 전략적 투자자에게 회사 등록, 세금 면제, 거주 및 근로 허가 발급 등 투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특히 아자니아(AZANIA) 은행을 통해 현장에서 금융 서비스 이용 제공, 이를 통해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른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라 국내외 투자 유치 증가

- 2024년 1분기에 TIC에 등록된 프로젝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5억 달러 기록
 - 1분기 신규 유치 투자 프로젝트 중 FDI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였으며, 국내 투자(DI) 비율도 증가해 48%를 차지
 - 주요 투자 부문은 운송 부문으로 전체 투자액의 32.5%를 기록했으며, 제조업(30.8%), 상업건물 건설(17%), 관광(11%) 순
- 2024년 2분기에 TIC에 등록된 프로젝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한 16.2억 달러 기록
 - 2분기 신규 유치 투자 프로젝트 중 FDI가 차지하는 비율은 57.9%였으며, 국내 투자는 42.1%를 차지
 - 주요 투자 부문은 제조업으로 전체 투자액의 39.3%를 기록했으며, 상업건물 건설(18.1%), 운송(17.6%), 관광(8.2%) 순임
-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최대 투자국은 중국으로 탄자니아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FDI) 유치 금액 중 43%(약 16.4억 달러)를 차지

〈최근 5분기 탄자니아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Q2 2023	Q3 2023	Q4 2023	Q1 2024	Q2 2024
해외 직접투자 (FDI)	397.8	1,053.3	703.0	770.2	938.3
국내 투자 (DI)	609.8	1,016.2	693.3	701.9	681.5
합계	1,007.6	2,069.5	1,396.3	1,472.1	1,619.8

자료: 탄자니아 투자청(TIC)

□ 탄자니아 투자 시 진출 장벽

- 열악한 인프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은 투자 진출의 장애 요소
 - 열악한 세수 기반과 인프라 개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과세 노력과 정부 재정사업의 기성금 지급 지연,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숙련 노동자의 부족 등은 기업들에 부담
 - 또한 관료주의,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 정책 연구 부족 등은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
- 하산 대통령은 2021년 3월 취임 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위한 투자 절차 간소화,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개선, 투자법·민관협력사업법·공공조달법 개정 등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라.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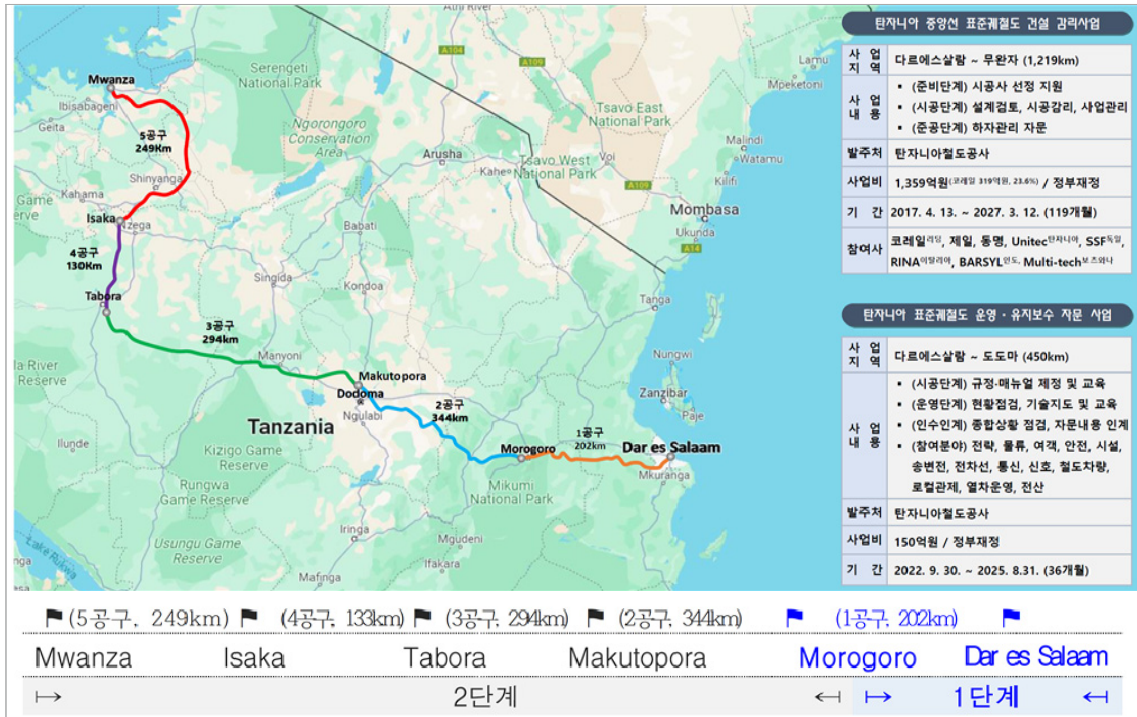
□ 에너지 분야 개발 프로젝트 활발

-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과 지역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LNG 플랜트 및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
 - 린디(Lindi)지역에서 진행 중인 LNG 플랜트 개발은 2023.5월 주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을 체결, 2025년 중 최종투자결정 기대
 - 탄자니아의 천연가스를 우간다로 수출하기 위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양해각서(MOU)가 2023년에 체결, 2024.4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입찰 발표
 - 우간다와 탄자니아 탕가항을 잇는 1,443km 길이의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을 우간다와 탄자니아 국영 석유회사와 프랑스 토탈 에너지, 중국 해양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
 - 상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면 플랜트 건설 및 설비 공급, 기계 및 장비 공급, 에너지 저장 및 배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산업화 촉진 및 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해 전력 확충을 위한 발전소, 변전소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 탄자니아의 전력 부족 문제는 경제 성장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요 변전소 및 배전망 확장 프로젝트 추진 중
 - 2024년 초 탄자니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의 시범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4년 말까지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12월 체결된 4.7억 입방미터 용량의 파크와 다목적댐 건설 프로젝트는 3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키고마(Kigoma) 지역의 말라가라시 수력발전 프로젝트 진행

□ 탄자니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 (철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완공 시 인접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무역 및 지역 통합 촉진 기대
 - 표준궤철도(SGR) 건설사업은 인도양의 다레살람 항구와 인접 내륙국을 연결하는 2,500km 철도 건설 사업으로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 1단계(다레살람-므원자, 1,219km) 건설사업은 총 5구간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다레살람-모로고로, 모로고로-도도마 구간은 2024.7월 개통됨. 2단계는 타보라-키고마를 중심으로 탄자니아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2.2월 중국의 시공사와 건설 계약 체결
 - 탄자니아 정부와 부룬디 정부는 Uvinza(부룬디)-Gitega(탄자니아) 구간의 SGR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며, 탄자니아-잠비아를 잇는 TAZARA 철도를 민간협력사업(PPP)을 통해 표준궤 철도화하기로 합의함
 - 탄자니아 중앙선의 나머지 구간 건설 완공과 인근국과의 표준궤철도(SGR) 연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표준궤철도(SGR) 운영·유지관리, 감리, 기관차·객차·열차 신호 시스템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코레일의 SGR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 수주 등 SGR 연관 사업 기회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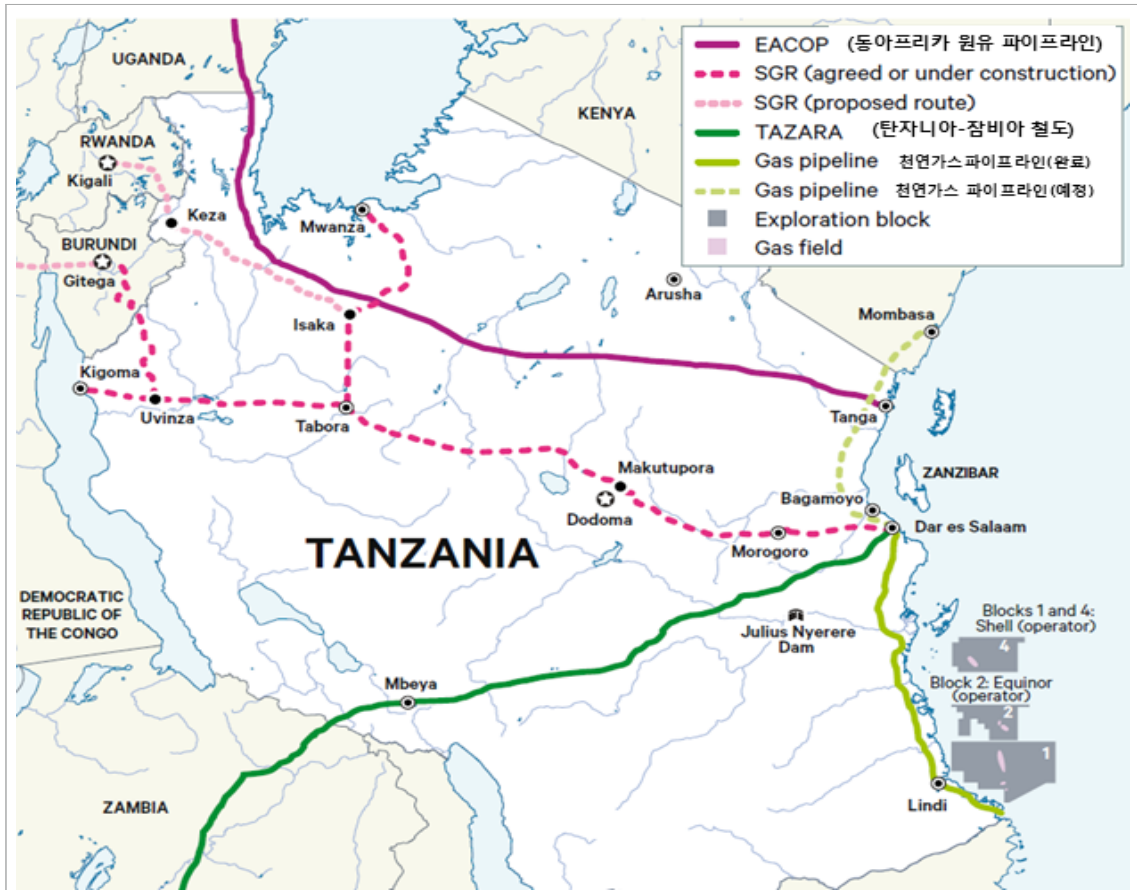
〈탄자니아 중앙선 표준궤철도 건설사업〉



자료: 코레일

- (도로 및 버스) 탄자니아의 교통 인프라 부문은 향후 10년 동안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내륙국과 국경을 접해 물자 운송 수요는 많으나 교통 인프라 개발이 저조한 편으로 개발 수요가 높음
 - 탄자니아 도로망의 약 80%가 비포장 도로이며 도로 밀도가 낮은 수준
 - 탄자니아 승객의 90%, 화물의 75%가 도로로 운송되나 도로 기반 공급망 열악
 - 도로 화물 운송은 연간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전망(Fitch Solutions)
 - 다르에스살람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킬리만자로, 도도마, 싱기다 지역의 BRT 프로젝트가 추진 예정

〈탄자니아 인프라 개발사업 현황〉



자료: CHATHAM HOUSE Research Paper(2024.4월)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2023년 한국의 對탄자니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5% 감소

- 2023년 총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천만 달러 감소한 3.7억 달러,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 기록 (전년 대비 수출 4%, 수입 10.5% 감소)

〈한국의 對탄자니아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151,237	200,128	321,157	308,448	272,451
수입	47,170	25,889	76,320	68,305	36,429
무역총액	198,407	226,017	397,477	376,753	308,880
무역수지	104,067	174,239	244,837	240,143	236,022

주: 2024년은 1~7월의 교역 실적 반영

자료: 한국무역협회

□ 철도차량, 화학원료,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 구리, 연초류 등을 주로 수입

- (수출) 2023년 상위 10개 품목 대부분 감소 속에 철도차량, 알루미늄조가공품은 증가
 - 2024년 1~7월 기준 표준궤철도(SGR)용 철도차량 수출액 1.8억 달러로 대폭 증가
- (수입) 2023년 연초류와 커피류 수입액 크게 감소 속에 동괴스크랩은 증가
 - 2024년 1~7월 기준 동광 수입액 크게 감소, 연초류는 2022년도 수준으로 회복

〈한국의 對탄자니아 주요 수출입 품목 (MTI 코드 4단위)〉

(단위: 천 달러, %)

순 위	수 출 (한→탄)					수 입 (탄→한)				
	품목	2022	2023	증감률 '22/'23	2024	품목	2022	2023	증감률 '22/'23	2024
1	경유(1332)	112,618	71,272	-36.7	0	동광(1130)	31,575	32,504	2.9	0
2	철도차량(7441)	25,101	56,371	124.6	183,844	동괴및스크랩(6221)	12,580	19,423	54.4	11,807
3	알루미늄조가공품 (6212)	0	24,441	-	5,903	연초류(0154)	22,329	8,431	-62.2	20,644
4	합성수지(2140)	30,451	30,450	-20.3	9,485	커피류(0151)	7,223	4,804	-33.5	2,251
5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14,563	20,244	39.0	10,786	기타해조류 (0449)	354	1,208	241.1	453
6	기타석유화학제품 (2190)	25,623	19,894	-22.4	5,485	식물성한약재 (0156)	661	604	-8.7	340
7	의약품(2262)	19,645	13,095	-33.3	7,327	화초류(0122)	446	361	-18.9	187
8	기타섬유제품 (4490)	16,201	11,308	-30.2	4,019	알루미늄괴 스크랩(6211)	132	262	99.4	196
9	승용차(7411)	4,967	5,623	13.2	6,022	합성수지(2140)	0	214	-	0
10	기타합성섬유(4119)	7,311	5,545	-24.2	3,040	수목류(0321)	125	119	-4.5	27

주: 2024년은 1~7월의 교역 실적 반영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의 수출 사례

- **국내 K사와 엔지니어링 C사, D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표준궤철도(SGR) 설계 및 감리 사업 수주**
 - 동 프로젝트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자금 지원사업으로 약 282km의 표준궤철도 노선을 탄자니아의 우빈자(Uvinza)에서 부룬디의 기테가(Gitega)까지 건설 목표
 - 동 프로젝트의 수주는 철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현지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매계약 체결**
 - 국내 H사는 탄자니아 MINE Expo 전시회 기간 중 무역관의 소개로 현지 광산 개발 관련 잠재 바이어와의 만찬에 참석, 바이어의 신규 광산기계 수요를 파악한 후 이후 개별 면담까지 진행하여 계약 체결
 - 중국산 중고 광산기계가 많이 보급된 탄자니아에 국내 신규 광산기계가 판매된 첫 사례로서, 향후 제품 유지관리 및 고객만족도 관리를 통한 확산 기대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탄자니아 누계 투자액(1995년부터 2024년 1분기)은 2,000만 달러

- 2023년 투자 금액은 275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5% 대폭 증가
 - 2024년 1분기 투자 금액은 541만 달러로 제조업 분야 투자 금액 대폭 증가

〈우리 기업의 對탄자니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	건수	10	17	9	11	11
	금액	633	416	2,186	2,970	11,742
신규법인 수		1	2	1	3	1
투자금액		318	401	1,701	2,747	5,412

주: 2024년은 1~3월의 투자 실적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술 서비스업, 광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큼
 - 탄자니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설계·감리회사가 대부분이며, 일부 제조업(가발, 바이오중유)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이 외 교민들은 식당, 여행사, 자동차 정비, 중장비 대여업 등에 종사

〈우리 기업의 對탄자니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분야	누적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8,942	43.5
도매 및 소매업	3,434	1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74	15.4
광업	3,102	1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	4.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0	1.5
건설업	236	1.1
정보통신업	236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50	0.7
합계	20,575	100.0

주: 2024년은 1~3월의 투자 실적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ODA 사업을 통한 탄자니아 투자 진출 기회 증가

- 탄자니아는 유·무상 원조를 위한 중점협력국으로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
 - 탄자니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 참여 기대
 -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2016~2020) 총 3.1억 달러 지원
- 중점 협력 분야로는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등

〈탄자니아 주요 EDCF 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지원액	현황(2024.9월)
키고마-냐카나지 변전소 건립사업	45	보충 용자 L/A 체결 추진 중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65	컨설턴트 과업 수행 중
주민증 시스템 확장사업(2차)	70	컨설턴트 과업 수행 중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90	분구매 입찰 진행 중
도도마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70	컨설턴트 과업 수행 중
이링가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	88	컨설턴트 입찰 진행 중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보충 용자 포함)	68	정상 시공 중
잔지바르 병구니 병원 및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64	컨설턴트 입찰 준비 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레살람사무소

-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보건, 교육, 농촌 개발 분야 중점 지원

〈탄자니아 국별협력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규모	기간
탄자니아 도도마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포괄적응급산과 신생아 서비스(CEmONC) 강화사업	6.3	'19~'24
탄자니아 잔지바르 중등학교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사업	10	'18~'24
탄자니아 청년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5.3	'21~'24
탄자니아 도도마주 보건의료정보체계 확산사업	6.2	'21~'25
탄자니아 보건 분야 공동재정지원사업 3차 사업	9	'22~'25
탄자니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사업	6	'22~'25
탄자니아 도도마시 및 아루샤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 모델 구축 시범사업	3.8	'23~'26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 어업종사자 대상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사업	5.5	'23~'27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STEM 교육 지원사업	10	'23~'2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레살람사무소

-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교육·보건·지역개발 분야에서 11건의 시민사회협력사업과 7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및 3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추진 중

〈탄자니아 시민사회협력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탄자니아 잔지바르 라디오 교육방송을 통한 중등교육 역량강화사업	'21~'24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아 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사업	'21~'24
탄자니아 차니카 지역사회 중심 지속가능한 포괄적 모자보건사업	'21~'24
탄자니아 포괄적인 안보건체계 강화를 통한 실명 예방사업(2단계)	'23~'25
탄자니아 코메섬 보건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 증진사업	'23~'25
탄자니아 시각 장애 학생 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23~'25
탄자니아 미취업 청년을 위한 AI 데이터 라벨링 교육	'24~'25
탄자니아 음타마군 포괄적 식수위생 개선사업	'24~'26
탄자니아 남서부 음보지주 커피 생산자조합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사업	'24~'26
탄자니아 잔지바르 카티군 지역사회 기반 아동 영양 개선사업	'24~'26
탄자니아 지체장애아동의 재활 기반 통합교육 모델 구축사업	'24~'26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레살람사무소

〈탄자니아 기업협력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규모
CTS	탄자니아 소규모 농가 농산물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반 친환경 살균 저장, 세척 및 유통 솔루션 개발 및 현지 사업화 (Seed 2)	500
CTS	탄자니아 제로에너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 및 실증 (Seed 1)	300
CTS	탄자니아 + 농촌지역 대상 식수공급 솔루션 개발 [흡입 재생 필터형 정수기] (Seed 1)	300
CTS	탄자니아 여성 패션 봉제 전문가 양성 및 글로벌 의류 브랜드 연계 일자리 창출 (Seed 1)	300
CTS	탄자니아 지하수 불소 제거를 위한 고효율 골탄 기술의 현지 적용과 안전한 식수 공급사업 (Seed 1) ('24~'25)	300
CTS	탄자니아 지속 가능한 식수 문제 해결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마개형 세라믹 정수기 보급사업(Seed 2) ('24~'25)	500
CTS	탄자니아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단가 향상을 위한 친환경 살균저장세척 솔루션 현지화 및 IoT 기반 유통과정 개선사업 ('22~'24)	500
IBS	탄자니아 기생생물자원 바이오뱅킹을 통한 이익 공유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 ('20~'24)	2,892
IBS	탄자니아 불소처리장치 구축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사업 ('20~'24)	2,279
IBS	탄자니아 캐슈넛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탄소 중립 경제성장 지원사업 ('22~'27)	3,54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레살람사무소

□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사례

• 국내 기업 Y社, 탄자니아에서 광물 개발 사업 추진

- 동사는 2024년 1월 탄자니아에 자회사를 설립, 니켈,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광물의 개발과 트레이딩 진행, 현지 합작법인(JV)을 통해 기본 광업 면허(PML)를 취득하고 니켈 원광 수출을 계획
- 탄자니아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배터리산업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 추진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차원) 탄자니아 정책 방향에 부응한 인프라 확충 지원

-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탄자니아에 유·무상 원조 및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및 기업 진출 촉진
 -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조약 체결 필요
-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은 '90년대 말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발효 절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기업 차원) 탄자니아 에너지, 인프라, 의료 등 프로젝트 시장 참여

- (에너지) 경제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수력발전소, 송·변전소 및 배전망 건설 수요가 높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의지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정책 흐름 활용 필요
- (인프라) 탄자니아는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고도화된 건설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 큼
- (보건·의료) 인구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인프라 미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공급망) 광물자원이 풍부한 탄자니아, 필수광물 공급선 대안으로 고려 가능

- 탄자니아는 금,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의 주요 생산국으로,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전자 제품에 필수적인 니켈과 코발트 보유
- 탄자니아의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탄자니아는 한국의 첨단 광물 가공 기술을 활용해 자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모델

- ※ ICT와 인프라 중심으로 MDB, 유·무상 사업 발굴 및 현지 시장 진출 활성화
- ※ 중고가, 제품 차별화, 맞춤형 제품 개발, 유망 파트너 협력 등 현지 시장 진출
- ※ 탄자니아 단일 시장이 아닌 인근국 포함 아프리카 진출 거점 국가로의 활용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국 대비 높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 노력과 주요 인프라 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EAC, SADC, AfCFTA 등 지역경제공동체(REC) 참여 확대 추세 • 한국-탄자니아 EPA 협상 개시 합의('24.6.2) • 고질적인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Economic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유입 증가, 농업 및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2024년 GDP 5.4% • 동아프리카 평균을 웃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GDP 6% ↑) 지속 전망 • 인플레이션율은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 이내인 연평균 3.5%로 비교적 낮은 상태 유지 전망 •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메가톤급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외화 수요 증가 등으로 탄자니아 실링 가치 절하 전망 • 단일 상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및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는 탄자니아 경제에 부담 요인
Socia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자니아 인구는 2040년까지 1억 명 이상 돌파 전망 • 2023~2040년 1인당 총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90.8% 증가 예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은 31.8% 수준, Euromonitor) •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소비 수요 확대 전망 • 빠른 인구 증가로 도시화 가속화 전망되며, 서구화된 소비문화 확산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지역의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
Technologica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모바일 통신망 발달로 2027년 74.6백만 명 전망 • 모바일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 머니(M-Pesa) 활용 및 응용 확대 • 주요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도입 및 정부의 국가 광대역망 확충 등으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 • 농촌 인구 비중이 높아 전자상거래 잠재력은 제한적이며,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영역의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 • 2022년 기준으로 연구개발(R&D) 지출이 GDP의 0.4%에 불과, 여전히 농업 및 광업 같은 1차 경제 활동에 의존하여 경제 발전 중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한국산 제품력에 대한 인지도 긍정적
-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 강점
- ODA, EDCF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 한류(K-드라마, K-beauty 등)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
- 우리 기업의 탄자니아 내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으로 경쟁력 입증

약 점(Weakness)

- 한국산 제품 수입 시 물류비용 높고 기간이 오래 걸림
- 기계 및 중장비류 수출 시 현지 A/S 지원 및 부품 조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리 제품이 선호됨
- 인프라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에 비해 타 분야 우리 기업 진출 부족
- 투자 진출 시 양질의 현지 인력 수급 애로

기 회(Opportunity)

- 한-아 정상회의 계기 한-탄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 AfCFTA, 지정학적 이점 활용한 시장 확대
-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및 모바일 산업 활성화
- 한-탄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확대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산업 중간재 수입 수요 높음

위 험(Threat)

- 중국, 인도산 저가 제품의 시장 지배
- 제조업 투자 시 사회간접자본 취약
- 설계·감리 분야 경쟁 심화
-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및 달러화 부족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 정부의 부정부패, 불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B, EDCF 자금 활용한 프로젝트 진출 • 한국 강점 분야 활용한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 	ICT와 인프라 중심으로 현지 시장 진출 활성화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전략 대신 중산층 이상 수요 겨냥한 고품질 전략 구사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유망 품목 발굴하여 현지 시장 진출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지역경제공동체(REC) 활용한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마련 	아프리카 진출 거점 국가로의 활용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력 파트너 협력을 통한 유통망 발굴 • 다양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 활용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설계·감리 분야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필요한 중장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모색 • 신규 발전소 건설, 송·배전망 구축 및 재생에너지 분야 수요 다대
광물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니켈, 구리, 코발트, 리튬 등 광물 자원 풍부 • 필수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광물 개발 분야 투자 및 광물 가공, 정제 및 제조 분야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시스템 현대화 협력, 정보보안기술 등 서비스 시장 진출 • 스마트시티 건립 수요 있어 관련 산업 진출 가능성 다대
농수산업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구의 60% 이상이 종사하며 정부의 집중 투자·육성 산업 • 농수산업 현대화, 생산성 증대, 생산물 고부가가치화에 중점 (신규 시설 확대 노력 및 관개시설 개선 사업 활발)
보건 및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되며, 정부의 의료·보건 육성 정책에 따라 의료시설 첨단화 및 의료 서비스 개선 • 현지 유력 에이전트와의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화 가속화, 중산층 증가함에 따라 소비 수요 다각화 •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대비 브랜드 생소한 경우 많아 적극적 마케팅 필요
탄자니아 성장 동력	<p>인프라·에너지·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농수산업·광물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탄자니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p>

3-1. 인프라 개발에 의한 경제 성장 촉진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아프리카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활발
- 경제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분야 개발 의지 높음
- MDB 발주 프로젝트 참여와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프라 관련 진출 기회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탄자니아는 다수 내륙국과 국경을 접해 물자 운송 수요가 많으나 교통 인프라 개발 미흡**
 - 총연장 2,500km 표준궤철도(SGR)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2024.7월부터 다레살람-모로고로-도도마 구간 개통
 - 탄자니아-잠비아를 잇는 TAZARA 철도 업그레이드* 추진 중
 - * 양국은 최근 중국과의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철도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 중국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을 통해 철도 현대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동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통해 자금 조달 예정
 - 철도 외 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레살람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사업 중으로 킬리만자로, 도도마, 싱기다 지역으로 사업 확대 예정
-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활발**
 -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약 57조 세제곱피트로, 린디(Lindi) 지역의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탄자니아-케냐 및 우간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중
 - 탄자니아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 CNG 차량 보급 확대를 목표로 CNG 충전 인프라 확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가 나무와 숯 대신 LPG와 같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정 조리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 활발**
 -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JNHPP) 프로젝트의 건설 완료 및 말라가라시(Malagarasi), 카코노(Kakono) 수력발전소 개발 중
 -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도 높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전력망 확장을 위해 송·변전소 및 배전망 건설 수요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현지 실정에 맞는 파트너 기업 확보 및 발주처 점점 확보 노력 필요하며,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 가진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열차와 철도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이 연계되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하며, 국가 전력망 구축과 관련한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청정 연료 기반 조리 기기, 저장 및 배급 장비,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보

3-2. 에너지 전환 광물과 자원 부가가치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탄자니아는 금, 니켈, 흑연 등 주요 광물들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광물 수요 증가로 탄자니아의 미개발 광물 매력도 증가
-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탄자니아 광산업 개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증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탄자니아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흑연, 니켈, 리튬과 같은 희소 광물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
 - (흑연)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흑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마헨게(Mahenge) 프로젝트는 202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
 - (니켈) 동아프리카 니켈 벨트(EANB: East Africa Nickel Belt)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니켈 매장지 중 하나로 꼽히는 카방가(Kabanga)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개발 중
 - (기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부존자원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
- *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양해각서' 체결
- 상당한 광물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탐사 및 채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탄자니아 흑연 생산량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의 0.64% 수준에 불과
-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광물의 가공과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가공되지 않은 리튬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프라 건설을 활용한 패키지 딜 형식의 자원 개발권 획득, 현지에서 광물 가공 설비를 운영하거나 정제 시설을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등 검토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 정책 자금 지원, TIPF나 EPA 등의 통상 협정 체결, 정부 간 협력 강화 등 아프리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해 공동 투자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

3-3.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인프라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디지털 경제 전환 기반을 다지기 위한 ICT 인프라 구축 활발
-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모바일 산업 성장 추세이며, 주요 통신사는 5G 서비스 출시
- 5G 장비,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구축 및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진출 기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탄자니아 디지털 경제 전략 프레임워크(Tanzania Digital Economy Strategic Framework 2024-2034)*’ 발표
 - *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강화, ICT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전, 사이버 보안 강화 목표 설정
 - (디지털 인프라 확충) △'26년까지 정보통신기술부(MICIT) 개발 예산 80%를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집행, △공공장소의 80%에 무료 Wi-Fi 제공, △학습 기관의 ICT 인프라 구축 △'28년까지 국가 ICT 브로드밴드 백본(NICTBB) 용량을 10Tb로 확대
 - (전자정부 강화) △'29년까지 전체 지역 및 지방 병원의 90%를 GovNet 연결 △지방 정부 기관 광섬유 연결 100% 완료 △경찰 및 이민 서비스 디지털화 90% 달성 △교육, 보건, 재정 등 공공 서비스 시스템 디지털화 목표
 - (기타) 2029년까지 10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디지털화되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

-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모바일 산업 성장세**
 - 탄자니아 모바일 가입자는 2024년 2분기 5% 증가한 7,660만 명, 스마트폰 사용률 31.5% 달성
 - 모바일 머니 계정도 2024년 2분기 5,600만 계정으로 전 분기 대비 5% 증가, 거래량은 2023년 한 해 53억 건에 달함
 - Vodacom, Airtel, Tigo 등 주요 통신사 5G 서비스 도입 노력 지속
- **탄자니아 정부는 세계은행과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N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 추진 중(2023년 5월)**
 - 2025년까지 광대역 보급률 80.0% 목표
 - 농촌 지역의 연결성을 높여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1,400개 이상의 마을을 포함하는 700개 이상의 구로 확장하여 전국적으로 약 850만 명 혜택 추진
- **탄자니아 조세청은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도입한 이후, 2023년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
 - *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5G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5G 지원 장비도 수요 증가 전망**
 - 네트워크 장비 수출 및 통신 시장이 고도화됨에 따른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전자정부 구축 노력에 참여**
 -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2029년까지 10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에너지 효율 솔루션 제안

3-4. 농수산업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농업은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2030년까지 농업 현대화와 식량 자급률 및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수산물 가공, 저장시설 확충, 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 고부가가치화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 농기계,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 비료, 가축 백신, 어업 생산성 향상 등 농수산업 자동화와 생산 혁신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 전망
- 현지 제조업이 미약하여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으나, 정부는 경제특구 운영과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K-뷰티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해 현지화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 활용이 중요하며, 저가 제품 대신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농업은 탄자니아의 최대 산업이자 경제 인구의 60% 이상이 종사하는 산업
 - 소규모 영농이 지배적이며 낙후된 농업기술로 생산성은 낮은 편
- 농수산업은 탄자니아 정부의 최우선 집중 투자 육성 산업 중 하나
 - 탄자니아 농업부는 2030년까지 탄자니아 식량 자급률 확대 및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을 목표로 농업 현대화에 힘쓰고 있음
 -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저장설비 등의 신규 시설 확대 노력 및 관개시설 개선 사업 활발
 - 소규모 농업인들과 투자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 위한 농업신용보증기금 조성
- 잔지바르 자치정부는 '잔지바르 청색 경제 정책(2020년)' 수립
 - 바다, 해안 및 기타 수역과 지하 및 해저를 포함한 관련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목적으로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
 - * △어업 및 양식업, △해양 무역 및 인프라, △에너지, △관광, △해양 및 해양 거버넌스 등
-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청색 경제 협력 MOU' 체결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농업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농기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개수로, 생산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인프라, 기계·기술·제품 등 수요 증대 전망
- 유망 분야로는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친환경 비료, 비료 제조공장, 가축 백신 등

3-5. 보건 인프라 확장과 의료 혁신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인구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예방 및 진단기기, 병원 운영 시스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ICT 관련 분야와 현지 생산시설 설립이 유망하며, ODA 사업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및 브랜드 인식 제고가 중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구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세계은행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로, 탄자니아의 인구는 23년마다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인프라 미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탄자니아 정부, 보건 시스템 확장 및 질적 향상을 목표로 의료산업 육성**
 - 탄자니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말 통과된 보편적 건강보험법(Universal Health Insurance Bill) 2024.7월부터 시행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보건 인프라 확장 추진
 -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보건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제5차 보건·의료 부문 전략계획 (Health Sector Strategic Plan, HSSP V), 디지털 보건 전략(Digital Health Strategy, 2019-2024)을 수립·이행 중
 - 의약품 현지 제조 장려를 위해 제약산업 자본재 부가가치세 면제, 탄자니아 정부와 이행협약 (Performance Agreement)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 후 5년간 법인세 인하(30% → 20%)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대규모 바이어 및 지정 조달청과의 네트워킹 통한 진출**
 - 무역관이 주최하는 각종 온라인 상담회 활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파악, 최신 트렌드 및 각종 조달 정보 입수
 - 해외 원조기금 재원으로 대부분 조달하기 때문에 관련 인증 및 등록 필수이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유통 전 탄자니아 의약·의료기기청(TMDA) 등록 필수
- **예방·진단기기 수출, 병원 운영 시스템, 의료 소모품 관리, 원격 의료 서비스 등 ICT 관련 분야 등 유망**
 - 낮은 의료 접근성, 높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예방 및 진단 중요
 -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

- **ODA 프로젝트 및 CSR 연계 통한 제품 홍보**

- 의료·보건 분야 ODA 사업 참여를 통해 브랜드 인식 제고, 시장 맞춤 전략 개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ODA 사업으로 제품 납품 시 지속 가능한 사후 지원(제품 AS 등)을 위한 현지 유망 파트너 발굴, 투자 진출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시장조사, 지사화 등

- **현지 생산시설 설립 및 합작도 가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현지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 및 협력
- 현 정부 정책과 연관 지어 기획 및 운영하여 각종 입찰에서 우위 확보

3-6. 소비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소득수준 증가와 도시화 가속화로 소비시장의 확대 및 소비 성향과 구매방식도 변화
- 현지 제조업이 미약하여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제특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K-뷰티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해 현지화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 활용이 중요하며, 저가 제품 대신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빠른 인구 증가와 주 소비층인 도시 거주 중산층 확대로 소비 수요 다양화**

- 탄자니아는 젊은 인구 비율이 높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와 연계된 새로운 소비 습관 형성
- 도시 거주 중산층, 가처분 소득 확대에 따라 필수 소비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소비 영역 확대 중

- **현지 제조업 분야 발전이 아직 미약해 소비재 수입의존도 높은 편**

- 탄자니아 정부는 현지 제조업 촉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각종 제조업 현지 생산 장려
- 경제특구(SEZs), 수출가공지구(EPZs) 운영, 투자 인센티브 혜택 부여

-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

☞ 한국 화장품(K-Beauty)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유명하다. 중고가 시장의 소비자들이 타깃 시장이며 스킨케어 등 기초화장품류가 제일 잘 팔린다. 색조화장품류의 경우 동양인과 아프리카인의 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팔 수는 없다. 아프리카인에게 맞는 색조화장품이 K-Beauty에서 개발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화장품 수입 바이어 K사)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다레살람 국제무역전시회 참가하여 현지 판촉전 시행 및 바이어 발굴 기회로 활용**
 - 동 전시회는 소매 판매가 가능해 일반소비자들의 반응과 경쟁업체들의 동향 파악 기회로 활용
- **K-뷰티의 현지화 전략으로 도시 중산층의 고급 제품 수요에 대응**
 - 현지 고객의 화장품 선호 사항 조사를 통해 K-Beauty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탄자니아 포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자료 개발
 - 디지털 마케팅 활용하여 젊은 잠재 소비층에 어필
- **중국, 인도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저가 전략 대신 도시 중산층의 고급 제품 수요에 대응해 대형 유통체인 및 쇼핑센터 공략**
-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및 단순 조립산업 투자 진출**
 - 자국 생산력 강화 및 시장 보호로 제약이 있으므로 생산기지 개념으로 접근
 -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AfCFTA 등 활용하여 아프리카 시장 공략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CNG 차량 개조 키트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위해 CNG 충전 인프라 확충 중이며, CNG 차량 개조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CNG 차량 전환 수요 증가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연료비 경제성 탁월해 CNG 차량 개조에 관해 관심을 두는 소비자 증가 추세
	경쟁동향	CNG 변환 키트를 제조하는 현지 기업은 없으며 수입에 의존
	진출방안	아직 초기 시장으로 탄자니아 CNG 성분에 맞춘 제품 공급하여 안정성 및 내구성 높은 제품으로 공략
품목명 2		
LPG 관련 장비 및 기기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는 청정 조리 솔루션 확산을 위해 LPG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저장소, 배관 시스템, 실린더 등 관련 장비 수요가 증가 전망
	시장동향	LPG 사용이 도시 지역에서 증가 추세. 정부는 2034년까지 9개 주로 배급망을 확장할 계획이며, 천연가스와 연계한 LPG 생산도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LPG 관련 장비 및 기기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진출방안	정부의 세금 혜택을 활용, 탄자니아 내에서 Oryx Energies와 Taifa Gas 같은 대형 LPG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 모색
품목명 3		
ICT 기자재	선정사유	통신산업 성장, 5G 서비스 출범 및 국가 광대역망 구축사업 등으로 광섬유 케이블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광대역망 및 데이터 센터 구축, 인프라 개선사업 등 추진
	경쟁동향	중국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
	진출방안	공공 조달 시장 참여, 현지 기업과 JV 구성하여 참여
품목명 4		
농기계 (트랙터)	선정사유	농업을 주요 투자·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농업 현대화 추진
	시장동향	2025년까지 트랙터 포함한 기계화된 농기구 이용률을 경작지의 50%까지 확대 목표
	경쟁동향	2017년부터 탄자니아 정부기관인 NDC(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폴란드 기업과 협력하여 자국 조립시설 가동 중이나 수입 의존도 높은 편
	진출방안	트랙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구매자들이 많아 시장 진출 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연한 납부 플랜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품목명 5		
농업용 비료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 육성 정책 시행에 따라 비료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현지 비료 생산업체 있으나 비료 사용량의 70%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튀르키예
	진출방안	현지 토질과 생산 품목에 알맞은 비료 시장 공략
품목명 6		
진단 의료기기	선정사유	의료접근성 높히려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보건사업으로 의료시설이 확대되어 진단의료기기 수요 높음

	시장동향	의료기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주로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등에서 수입하며 한국은 주요 수입국 5위
	진출방안	의료기기의 경우 A/S나 부품 조달 때문에 유럽과 같은 근거리 국가의 제품을 선호,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신뢰할 만한 에이전트 발굴 필요
품목명 7		
화장품	선정사유	중산층 및 젊은 세대 중심으로 양질의 합리적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유로모니터)
	경쟁동향	주로 남아공, 우간다, 케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제품 보편화되어 있음
	진출방안	스킨케어 제품이 유망하며, 아프리카 시장 겨냥한 제품 개발 및 홍보전략 필요
품목명 8		
의약품	선정사유	보건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부가세, 법인세 인하 등 혜택 확대
	시장동향	수입에 의존하나 로컬 기업과 합작투자자도 현지 생산하는 품목이 점진적 증가 중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로서 유럽, 중동, 인도산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며, 복제약도 다수 유통
	진출방안	해외 원조기금 재원을 활용한 조달 입찰에 참가 또는 주요 병원 등 의료 체인 유통망 통한 접근
품목명 9		
건설기계	선정사유	핵심 광물 자원의 풍부한 부존량과 높은 개발 수요로 인해 탐사 및 채굴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건설기계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 전망 (ITC)
	경쟁동향	미국, 유럽 및 중국 기업의 제품이 주로 진출
	진출방안	현지 A/S 지원, 교체용 부품 조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고, 일회성 판매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의 임차 사업을 검토
품목명 10		
전자정부	선정사유	모바일 산업 성장과 향상된 국민 의식 수준이 뒷받침된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지속 확대 중
	시장동향	전자 입찰 시스템(TANePS), 주민등록(NIPA), 토지 관리 시스템(ILMIS) 등이 도입되었으며 한국은 국토 정보, 조세 포털 등에 참여 중
	진출방안	경험공유프로그램(KSP) 등 ODA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을 활용한 진출
품목명 11		
차량 부품	선정사유	소득 증가 및 인프라 건설 사업 증가는 자동차 및 상업용 차량 수요 증대로 이어져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증가,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부품의 마모율 높아 부품 교체 주기 빠른 편
	시장동향	탄자니아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90% 이상을 일본산이 점유 중이며, 고무류 제품,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하체 부속, 차량 타이밍 벨트, 엔진 내부 부속, 클러치 패드 수요 높은 편
	경쟁동향	경쟁 심화 추세, 중고 및 신부품은 일본, 중국, UAE, 영국, 튀르키예, 한국 등에서 수입되며 중국 제품이 저렴한 가격 대비 품질 개선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진출방안	가격 민감성 높으나 고소득 소비자의 경우 가격보다 제품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우선시하므로 틈새시장 공략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인프라 분야 설계·감리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 유지로 인프라 사업 수요 지속 전망
	시장동향	철도, 도로, 항만 등 관련 프로젝트 발주 지속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해당 사업 차관 공여국의 기업 간 경쟁 심화
	진출방안	EDCF, ODA 프로젝트 통한 시장 초기 진출, 이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 참여, 역량 있는 현지 파트너 발굴, 협력을 통한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품목명 2		
ICT 컨설팅 분야	선정사유	인터넷, 모바일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보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
	시장동향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유럽 및 이스라엘 기업 진출이 활발
	진출방안	TCRA 등 정부 조직과 주요 부처에 대한 보안 서비스 자문 혹은 모바일 금융, 모바일 결제로 보안에 관심이 높아진 은행 및 통신사 타깃
품목명 3		
보건·의료	선정사유	인구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되며 탄자니아 정부도 의료시설 첨단화 및 의료 서비스 개선 의지 높음
	시장동향	보건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사용 증가 추세
	진출방안	병원 운영 시스템 수출, 의료 소모품 관리 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등 ICT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시장, EDCF, KOFIH 등 ODA 기관과 연계한 시장 진출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보건 및 의료	2025 DITF 전시회 연계, 한국 상품 홍보의 날 (Korea Business Day)	'25년 7월/다레살람(탄자니아)
	동아프리카 소비재·의료기기 무역사절단	'25년 3월/다레살람(탄자니아)
	2025 Dental Expo 연계, 의료기기 진출 지원사업	'25년 5월/다레살람(탄자니아)
광물 (공급망)	2025 Mine Tech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25년 9월/다레살람(탄자니아)
디지털 전환	2025 Mobile World Congress Africa 연계 동아프리카 ICT 로드쇼	'25년 10월/키갈리(르완다)
인프라	한-탄자니아 발주처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25년 10월/다레살람(탄자니아)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2025년 10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025년 6월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50	2025년 7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11 th East African Petroleum Conference & Exhibition 2025 (EAPCE '25)	2025년 3월	
Smiles Dental Expo 2025	2025년 5월	
Dar es Salaam International Trade Fair	2025년 7월	
East Africa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2025년 9월	
MINE Expo 2025	2025년 9월	
Water Tech 2025	2025년 9월	
Power & Energy AFRICA 2025	2025년 10월	
MEDEXPO Tanzania 2025	2025년 10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원준영	관장	다레살람 무역관	+255 22 292 2201	jywohn@kotra.or.kr
2	이정훈	Specialst	다레살람 무역관	+255 22 292 2201	junghun@kotra.or.kr

2025 탄자니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SBN : 979-11-402-1251-4 [95320]